

9_5_한국어_出島の灯台

데케지마 등대

오쓰시 유형 민속문화재

[A.D.1918]

이것은, 1875년에 세워진 목조 등대입니다. 5개의 기둥으로 받치고, 높이 약 7.8미터의 지주 꼭대기에 불을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. 1918년까지는 램프를 사용했고, 그 이후는 전등으로 바뀌었습니다.

이 등대는, 1961년의 태풍으로 쓰러지기 직전의 상태가 되었습니다만, 지역 주민의 열심한 보존 운동으로 1973년에 복구되어, 1989년부터 점등이 재개되었습니다.